

聖句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사
로 동용하고 제 재물을 조
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행전 四章 32절)



發行所
福音新聞社
東京都千代田區
神田猿樂町2-4
振替口座東京182538
電話 神田(25) 2623番
編集人 吳 允 台
發行 華 田 榮 澤

社説

마음의 싸움

우리나라는 지금 벌써 사년째 걸쳐서 공산군을 상대로 싸우고 있다. 물론 우리만 혼자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군과 그밖에 유엔 여러나라의 파견군과 같이 싸우고 있다. 그러나 최일선에 나서서 가장 피를 많이 흘리는 것은 우리요 가장 안타깝게 이겨야 하겠다고 애라는 것도 우리라 하는 것이 사실이다. 다른 군대는 이물질 불을 쏘는 처지라 그 열심이 아무리 대단하더라도 당국한 달자만 할 수는 없으니 자연 몸 그마음이 느슨할 것은 피쳐 못할 일이라 결국 끝까지 죽기를 한하고 싸워야

우리라는 지금 벌써 사년째 걸쳐서 공산군을 상대로 싸우고 있다. 물론 우리만 혼자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군과 그밖에 유엔 여러나라의 파견군과 같이 싸우고 있다. 그러나 최일선에 나서서 가장 피를 많이 흘리는 것은 우리요 가장 안타깝게 이겨야 하겠다고 애라는 것도 우리라 하는 것이 사실이다. 다른 군대는 이물질 불을 쏘는 처지라 그 열심이 아무리 대단하더라도 당국한 달자만 할 수는 없으니 자연 몸 그마음이 느슨할 것은 피쳐 못할 일이라 결국 끝까지 죽기를 한하고 싸워야

가까지는 거머이 싸워야 하고 싸워야 할 절박한 필요를 느끼는 자는 우리밖에 없는 것이다. 이 싸움에 승리하면 통일되어고 우리의 살길이 열릴 것은 다시 말할 것도 없고 만일에 실패를 하고 중도에 그만두면 결국 민족의 운명이 얼마나 비참해질것은 생각만 해도 몹시리가 날 일이다. 그러면 여기에 싸워야 하겠는 군은 신념과 싸워 이긴다는 용감한 투지가 절대로 필요한것은 우리가 다시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전쟁이 오래 끌어가니 힘이 지쳐 까담인지 모르거니와 전국민이 싸워야 한다는 절박 정신이 있는것을 잘지 아니

하고 싸우면 이긴다는 사기가 부족한것은 유감이다. 내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남의 일을 하고 있다는 태도같이도 보인다. 더구나 후방의 형편은 이것을 절실히 느끼게 한다. 우리는 우리 민족가운데 흐르는 불안을 보고 일부 청년의 맥빠진 태도와 유별히 일부 악질 반역분자의 사처와 형납적인 생활태도를 보고 격분할 금치못하는 것이다. 싸우고 있는나라의 국민이라고 할수 없는 본자는 단연 처단을 하여야 할것이다. 여기에는 화실히 두가지 원인이 있을것이니 첫째는 왜 싸우느냐 하는 마음의 이념과 신념이 부족한 것이다. 공산군의 침략을 받고

青年獻身傳道運動
世界會議日 本에서開催
이러하며 이 집회를 지도할 이는 『국제(전도운동인) 청년을 그리스도에게』 세계총리 『불국』 박사라하며 세계각국 각처에서 모인 지도자들은 같이 기도하며 같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쁨을 가지고 회중(會中)에는 세계 각선교회의 모든 경험과 전도의 기도와 문제에 대하여 도의할 시간이 있을것이고 이리하여 모든 일군이 직접 들은 보고로써 전세계에서 요구되는 환상과 목사를 볼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며 회의의 시간이

고 있다. 印度의 代表가 平和의 이름 밑에 受諾하기를 원했음에 朝鮮外相의 신시스가 「그것은 感傷의인 바로짓」이라고 一축한 韓國休戰印度案이 UN 總會에서 五十四對五라는 壓도의多數로 可決되었은 昨年十二月三日이었고 今般 中共首相 周恩來가 提案한原則은 그印度案과何等의 차이가 없는것이다. 그러함인지 『平和會議』이 進行되는 板門店의空氣는 『韓國의 日氣』에 拘限되지않고 樂觀的이라고한다. 그리하여 이 미傷病捕療의休戰案환에 合意를 본 兩國代表者代表들은 이제 和平장소 韓日 方法을 구체적으로 考議하기 시작하였고 早速 關稅의 회담이 진행될것으로 多우觀測하고 있다. 去般 印度가 UN에 休戰案 提出 다음에는 각지에 모인 대표자 부속전도가들이 일본의 전도자와 합하여 동경을 중심으로 일본 전국 각지에 대한 전도운동이 전개 될런데 우선 회기중에는 매일밤 동경 각처에서 전도집회가 열리고 인쇄물을 배포할것이고 八月十七일로부터 九月일일까지 두 주일동안 전국각처 각시 각현을 따라서 50의 전도운동이 일제히 열릴것이고 특히 공적 유홍가에 특별집회가 있을것이요 이운동이 끝난다음에는 따로이 결심자의 再集회 집회가 열리리라고한다. 또 이대회 지방운동 준비위

二百萬圓募金決議
傳道資金確立目標
제일대韓기독교총회임원회는 지난 二十一日 大韓복부예배당에서 임원회를 열었는데 박금 전제중인 신도배가운데 아울러 「전도자금二百萬圓」 모금운동을 전개할것을 결의하였다. 동임원회는 이 모금운동전제에 관한 구체적인 도의한후 모금중앙위원회 총회 임원六名으로 하고 각지방에는 지방회마다 五名의 위원을 두고 적극적으로 활동하기로 하였다. 이 모금의 목적은 재일교포에게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의국원조반에 의하지말고 우리의 전도자금으로 우리교포전도에 전신도가 적극적인 태도로 직접 참가하자는 점에 있다. 이 결의안은 이번 임원회에 서 갑자기 결의된것이 아니고 총회산하 유지를 사이에서 일 주부터 갈망이 있던 문제임에 결의의 때와는 대단히 호평이다. 이 일이 실현되면 재일교포전도 방편에 관한 구체적인 문해도 실현될것으로 성공적 기대되는바는 적지아니다.

생사를 알아보려고 여러번
에쓰며 다녔으나 알길이 없
고 알려주는이가 없었다고
한다. 그리고 마땅히 지도해
주고 알려주고 위문이라도
하야 할 단체와 당국에서
위로는 커녕 대하는 태도가
불친절하기 때문에 그어머니
는 대단 분개하였다고 하니
매우 유감된 일이다. 같이 갔
든 동무의 말을 들으야 중
은줄을 알게되고 그뒤에야
겨우 판계당국에서도 전사라
는 말을 들었다는 예 이런
적은임에 성의를 쓰는 것이
나라를 사달하는 것이요 전생
에 협력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이름을 들로는 것도 교회
의 책임이다.

基督教青年運動의 新段階 — 信仰의 反省에서 教會復興에 —

「이글은」 각 지방 단위 청년수양회에서 역설한 강연 요약이다」
교회청년회의 발달을 살펴보면 운동으로 방향을 정하고 본래 면(약 17)년 전에 예수교인의 뜻에서 하나이 되려고 노력해서 소(직공에게서부터 시작된 것을 알 수 있다).

참시자는 R 로버트 트리에 그 주일에 어린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서부터 성경반을 조직하고 발전적으로 정성시켜 교회청년회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 일의 각 교과과정은 조직되어 마추내 세계적 회에 파급되어 마추내 세계적 이 발전을 하게 된 것이다. 교회 부인회 소년 소녀회등도 여기에서 성별 연령별의 조직으로 나누어지고 흥미를 따라 클럽 등이 조직되어 오늘날에 이른 것이다. 물론 그 중심은 성경공부에 있고 믿는자의 필요성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너무 복잡하게 분립하였기 때문에 많은 지도자들은 통일된

그러나 그것은 용이한 일 아니다. 아메리카에서는 각 교파 청년회의 성격을 가지고 다른 교파청년회와 친목적 의미로서 사되는 일들이 동양의 단체라고 보고 있으며 캐나다에서는 청년들의 가능한 일에는 행동하며 처리하는 단계에 있다. 그 근본 뜻은 세 사회 실현에 의 목적전 교과로서 경화를 이루어 함이 아니고 경제적 정주에서 사회는에만 건전한 사회를 세울 수 있다는 의도도 있는 것이다.

이런 의도는 청년운동으로서의 자연적 결과를 바라는 것이나 교회로서는 신앙청년들이 교회에 관심을 두고 예배중심인 신앙자로서의 활동을 바라 는 것이다. 더욱이 오늘날 같이 복잡한 대인사육 그런 움직임이



名古屋教會 永信幼稚園卒業式
五月五日「어린이날」을 맞이 하여 우리의 미래는 이렇게 장성합니다 하면서 발표된 사진은 나고야교회에서 경영하는 영신유치원이다. 보모는 이국회 이순희 박문자씨고 원장으로는 김덕성목사가 계시다.

信仰青年의 反省

그리스도인의 생애라는 것은 죽어야 맛당한 인간이 구원받을 받고 구원에 합당하게 나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됨으로 말하면 완전히 현명한 생활이 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인도하시는 대로 말은 바 직무에 꾸준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의 재능이나 자기의 재능이라는 것도 구속함을 받은 후에는 이미 자기의 것이 아닙니다. 자기로서는 하등의 자랑할 바가 못되는 것입니다. 만약 자기것으로 알고 자랑한다면 하나님의 것을 사사로이 쓰는 것이 될 것입니다. 본

만 아니라 자기의 것으로 자랑할 생각이 이러한다면 자기를 하 나 남에 바쳤다는 의식이 없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자기와 자기의 전부를 바치고 파가의 자기는 죽었다는 의식이 명백 하면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식이 분명하여 전 것이 많이겠습니까. 만약 이 일을 근대문명발달에 비취워 말한다면 학문이나 지식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인데 지식이나 학문이라는 것이 제 맛대로 인간을 깨우려 부리고 하는 경향이 인류에게 불행할 가져 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向上社保育園大發展
新築한建物도狹小

영도교회 직영인 할당사로 육체는 근로제원들의 자녀들을

聖徒의 交際問題

요구되는 것이다. 우리는 다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과 생활면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그들은 믿는 형제 자매가 한곳에 모여 있을 때 어떤 면에서 기도하였다고 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성도의 교제와 원형이라고 본다. 오늘날의 교회청년회라는 것은 그런 신앙정신에 도라가자는 원의의 운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못하다면 그렇게 하려는 우리의 모임이 되게 하 여야 할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발을 씻어 주시면서 이 뜻 을 가르쳤다. 第二차대전후에 워크랜드라는 기독교청년회학생 운동이 국제적으로 이러나고 있는 것도 이와같은 정신에서 시작하여 피차가 서로 섬기는 일로서 펠로십(친교)을 가지자는 일들이다. 그들은 누가 명



오사카시 히가시요도가와구 (大阪市東淀川區南方町)에 있는 복음의원(福音醫院)에서는 개원 일주년을 맞이하면서 대 화를 개최하고 있다.

大阪福音醫院 丁仁壽牧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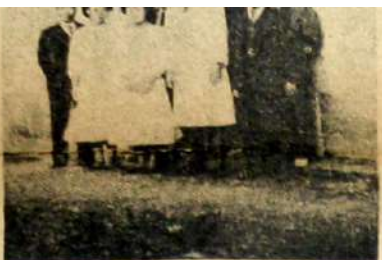
오사카시 히가시요도가와구 (大阪市東淀川區南方町)에 있는 복음의원(福音醫院)에서는 개원 일주년을 맞이하면서 대 화를 개최하고 있다.

복음의원(福音醫院)은 오사카시의 히라노(平野) 교회를 모국하는 일본교회로 한 해에 한 해에 금년부터 대회를 열어 복음의 아들을 수종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지원자가 너무 많아서 원사가 부족되어 적정이라고 하 더 적당함으로 모가 구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우리교회도 후원연에서 우리나라사람 보모는 한 분도 구하지 못함은 교회안에 보모자격을 갖인 여성이 한 분도 없는 형편이니 참으로 막한 일이라고 하며 우리나라 여성들 도 사회사업에서 헌신하는 분 들이 나타나기를 바란다 고 한다. 하기 때문에 부득이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스스로 자기 의무를 내의 하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라. 그리스도 인 다울의 임기라는 것이다. 지나간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성경만 공부하고 할마치는 것이 보물이었으나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그런 교제도 기계적인 모임이 고집이 아니고 회한 들이 피차간의 신앙과 생활상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하며 격려하고 헌신하며 나가야 할 줄 아는 것이다. 때로는 리크메이슨 같은 것과 일반적으로 신변과 주위에 이러나는 문제들을 이하는 일도 복음전도의 일면 인 것으로 깨달아야 할 것이다.

宗子지방에는 읍이 오-이가거 (大垣) 교회면청 연 오양이었다. 교회로 많하면 도요하시 (豊橋) 와 미케즈와 나 (三重縣桑名) 교회와 오카자 가 (岡崎) 기부 (岐阜) 전도소도 있으나 도요하시 (豊橋) 에서 세천년이 창설하고 구와나에서 는 한사람도 창설하지 아니하 였다. 그 이유 여하는 필자의 권한의의 일인줄로 알기때문에 무를 생각도 하지않았으나 접 은이들의 모임에 피차 적극적 으로 참가하였다면 성도의 화	나요하 (名古屋) 중심이요 다 교회면청 많하면 와 오카자 전도소도 에서 구와나에서 창설하지 아니하 는 필자의 알기때문에 접	이 교회에는 개회는 교역자들이 되었다 것은 의의였 다 이유는 중부지방천년들의 연합체가 없었기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이 연합회를 위한 연락회의가 있었다면 그 연락 회에서 푸른진영위원을 선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을가 하는 의문과 아울러 우리 교인 과 중부지방 개회 에 개회 에 개회 에 개회	가 더하였으리라고 느꼈다 이 회합은 명석이 천년들의 집회였는데 개회는 교역자들이 되었다 것은 의의였 다 이유는 중부지방천년들의 연합체가 없었기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이 연합회를 위한 연락회의가 있었다면 그 연락 회에서 푸른진영위원을 선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을가 하는 의문과 아울러 우리 교인 과
--	--	---	--

지금까지는 역사적인 제 설명
을 주로 하였으나 〔驅使의 요책
을 주로 생각하는 것이 硯
적인 성격은 되나 青年時代의
실정은 우리들의 현상만 보아
도 지도자문제 의화의이해(理
解) 문제 공정한문제 응용방법
문제 잘못된 파벌과힘들을 정
리하지 않고서는 한발자국도
전진할수 없는 현상이다.
이와같은 문제는 세계기록청
년운동에도 문제가되어 논의된바
거기서 나온 결론은 중요요육
각요과와 각국 청년지도자
세계에 같은 전통자(千統者)
로 세움을 받았다는 의식(義
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현대에 의치야할
그리스도청년으로서의 사명감을
분명이 깨달고 그의것에 대
하여 지나친 고집을 버리도록
하자는 것이다. 거기에는 무치
지 못할 문제보다 동지적 결합
을 먼저 찾게 할수있는 점이
있다는 것이다 거기에 신도의
요책나 용일을 위한 협력은
나타날수 있다는 것이며 이점
을 요육으로 보급시키자는 것

擴充計劃



福晉醫院職員 平總會員 呂

복하고 계신 정인수(丁仁壽)는 일찍부터 의료전도(醫療傳道)에 뜻을 두고 의학과 병치료에 관한 연구를 하되 오는 작년에 명실공의 복음의 원리를 설명해 끼친 것이다.

임자도 없이 개최되던 사설
에, 이후에 긴급한 일인듯도
하였으나 수양회 도중에 열려
말고 그 시간이 더 유용하게
이용되었으면 좋겠다. 준비회
개회 없는 우리들의 열 처리
방법의 약점이 거기도 있었다
주부지방 집회는 인천이 제
없고 나고야말로 나아진 친구
들이 많았던 관계로 단합하고
뛰기는 있었으나 중심이 잡히
지 않았던 것은 역시 유감이 없
같은 기록자를 사에서 솔직
한 도로가 나눌들의 있었지만
은 삼처(三處)를 보지도 아
니하고 부목(一)을 보지 않고
준설사로온 조사와 발전 기
법이 사라지지 않는다. (三)

(新約)
(講解)

디모데전서

求道者

一 牧書舊價의 價値와 價値 一 디오
新法書화 디오 舊法 舊法 舊法
회서 신이 라고 부르는 데
그 이유는 바울의 제자 디
오와 디오가 舊法을
말하는 데 관한 舊法을 주
의를 같이 기록하여 보낸
四本書의 價値 이상과 같은 사

[illegible]

디모데는 유대인과 디모데는
 아세아의 루가오니아에 유스
 메라市에서 탄생하고(羅十六
 1-24) 아버지인 희랍사람
 인의 어머니는 신앙이篤實한
 유대인이었다(딤후 1-5) 바
 울의 제자가 되어 믿음과 바
 울의 제일이 전도되기에 수
 행인이 되었는데 바울은 유대
 인 전도의 지장이 없도록 하
 기 위하여 디모데에게 참례를
 배부렀다는 이야기는 유명한
 이야기다 그후 바울의 전도
 도덕적 가장 좋은 통로자
 가 되었다. 사립이다.
 부하기 위하여 유대인의 관습으
 로 나뉘었다면 첫머리의 인사
 를 한후 디모데에게 그릇된
 가르침을 경계하라고 하고
 (1-3 11) 바울의 사도직의
 존귀성과 그의 의를 회고하
 고(12-17) 이것을 계승하
 는 디모데의 책임의 중대한
 것을 알린다(18-20) 따
 라 사회문제(21-27) 가정
 문제(28 15) 교회내 치리
 (31-113) 등에 관한 주의
 지시를 하고四절 이하에
 서는 디모데에 관한 주의와
 바울의 필사자의 발음을 알라

三本書記辭事由一바울은 원도
생애에서 잊을수없는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를 머물러 목
회하게 하였는데 시간이 갈
수록 세상은 변천되고 교회
는 확장되었다 그와 동시에
이단 잡설을 주장하는 사람
들도 나타나고 교회처리상은
제와 역할의 순결보정에 주
의할 문제도 일어났다. 이런
일들에 접은 제자 디모데가
실수없이 처리하여 나가기를
논해 앞으로 이 공상지대에
조용히 중심한 병원을 세
우고 섬겨보고싶어 노력중임
이니이다 하였다.

었다. 그러나 그속에도 일반
적인 것이 많이 섞여있기
때문에 구별하기 어렵다.
우리는 이런것들을 뜻하여
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대한
바울의 인자함과 사랑이 넘치
는것을 주의하여 배워야 할
것이다.

七 本書의 內容分解

一인사말씀	一112
二디모데에게 격려	一3120
三목회상 주의	二정1六정
一일반적인 문제	二정1三정
二개인적인 주의	四정1六정
一이단에 대한 주의	一211
二사도직에 대하여	一1217
三사도직 위임문제	一18120

說教

예수의 선포 첫소리

마가一章一節—十五節

名古屋教会牧師 金德成

세례 고한이 요단강변을 오르 나리며 목이 터지도록 부르짖 은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와나니라』 한 것이요 예수님께서도 삼십년 동안이나 사시 던 나사렛을 떠나서 공생애의 첫걸음을 내디디실 때 첫번 부 르짖으신 말씀이 회개하라요 외치신 것이요 이 회개란 말은 처음 믿는 이에겐 모르되 이 미 믿은지 오랜 자들에게는 아주 낯은 문제로 생각되기 쉽 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는 어 느 시대 이든 뜻을 불문하고 작 중요한 문제요 또 가장 복된 문제이다 왜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세 전부터 예 비하여 두신 복 모든 선지자를 이 맛으로 고쳐 쓰신 그 복을 우리 인류에게 전하실 때에 제일 첫소리는 이 회개인 것이다.

회개 기독교는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 서 제일 미워하시는 것이 죄인 까닭이다 따라서 우리 기독교서 럼 이 죄악 본체에 대하여서 고령게 말하는 종교는 없는 것 이며 예수의 십자가도 이 죄 때문에 있게 된 것이며 기독교는 이 죄를 회개하고 죄를 해 결하므로 시작된 것이다 (마 〇一절)

성경에는 중요한 교리가 많 으나 회개에 대한 교리는 극 히 중요한 것이며 하나님은 어 데서든지 모든 사람에게 회개할 것을 현명하시는 것이다. 이는 인생의 사활문제 우리의 죽고 사는 큰 기점이 여기에 있는 까닭이다 하나는 사망으로 가고 하나는 생명으로 가고 하나는 지옥으로 내려가고 하나는 천 국으로 올라가는 갈래길인 까닭 이다 죽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개란 말은 『메다노이아』는 세 로 온 마음을 갖는 것이며 심의(心 意) 심정(心情)의 변명을 의 미하는 것이다. 우리들이 현재까 지 가든 길에서 『돌아우편』하여 전연 반대 방향을 가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할려고 생각하고 결정하였 으나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그와 반대의 행동을 하 는 것이다 이것이 인간의 입장 에서 말하는 회개요 자기의 스사로의 길을 버리고 기쁨으 로 하나님의 길을 쫓아가는 것 이다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 은 전연 반대되는 것이다 진실 한 회개는 과거의 길을 완전히 버리고 현재나 미래 그리 고 영원히 하나님의 길을 따를 려고 최후적인 결심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회



校座 教授法
會講 禮拜の方法
教師 魯安理

그대서 그 주간 동안 계속적 으로 집합할 것과 각기 여러가 지 그림 혹은 찬송가 같은 것 을 알아 올 것을 정하였다. 두 시간이나 걸려서 그림과 찬송 가 관한 연구를 하였다. 결국 제 목은 『예수의 복음 선포 개 선 (觀)』 이라고 하게 되었다. 그 이유를 예배 인도할 주임이 바로 찬송 주임이기 때문이었다. 연구의 연구는 다 마친 후에 한 소녀가 개

관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 님에게 헌납하는 데도에서 온 전히 개변(改變)함을 가라침 이며 모든 사악 불완전 죄의 추악에서 참이시요 선이시요 미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을 말하는 것이다 또한 회개라 는 것은 먼저 자기 죄를 깨닫지 아니하면 안된다 그러나 자기 의 죄를 깨닫는 것만은 회개는 아니다 인간은 죄를 알고 있어 도 결코 이것을 고치기가 어 렵은 것인 때문이다 우리가 죄 를 미워하고 자기가 범죄한 일 에 대하여 눈물을 흘리고 슬

傳道欄

예수를 믿을 자는 영생이 있다

우리는 그 동안 죄의 문에 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 는 도리를 대강 상고하였다. 그러나 아직 불충분한 점이 많고 독자가운데 의심나는 일 도 많을 것 같아서 이제 다시 한 번 중요한 도리를 들어 설 명 하려고 한다.

첫째의 문제 첫째의 의문은 우리가 진정으로 뉘우치기 만 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사 해주실 터인데 예수를 꼭 믿어 야 되고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

물론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받아 주실 것이지만 그렇다고 회개로 우리의 죄가 해결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그것은 왜 그러나 하면 (누구 랑 했다면) 좋은 점을 지적하 면서 다음 기회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내 었다. 그들은 예배와 종교에 관한 많은 공부들이 교회에 할 수 있었던 것이다.

2 바다가에서 물에 빠진 사 람을 모험을 무릅쓰고 건져낸 사건이 있었다. 중등부 학생들 은 이 사건에 큰 충격을 받 았다. 마침 그들은 예배 인도 의 준비를 하던 차이라 이 사 건을 그 예배에 이용하기로 되었다. 교사도 도왔다. 그들은 폭풍과 파선의 광경을 재현하 는 연극을 할 것을 생각했다. 그들은 활동사진과 예배의 구 별을 묘사하여 와서 건수 알 수 있게 된 어린이들이었다. 폭

풍과 파선에 관한 찬송가를 찾았다. 한 사람이 그 사건을 보고하는 역할을 맡고 하 사람 이 성서를 읽을 것도 결정되었 다. 또 시를 암송할 사람 기 도를 드릴 사람 그리고 하창 대도 결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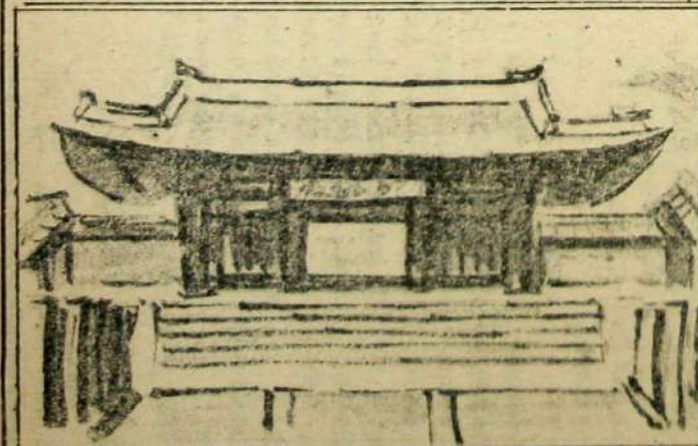
여기서도 우리는 다음의 원 측을 찾아 낼 수가 있는 것이다 이 개회준 학생들의 자발적인 개회이었다는 것과 교사는 결 에 서 다만 암시 자극 지도를 하였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 개회준 클라쓰에게 감동을 주는 개회이었다. 교사는 이 상황을 온전히 이용하기 위하 여 주의하여 적당한 기회를 잡아서 그들의 생각과 이상 (理想)을 넓혀 주는 동시에

香氣 소경의 등불

한편은 어떤 소경의 등불이
 한 방에 어떤 작은 불꽃의
 가면지 등불을 불꽃가
 등불로 지니가는 사람의
 등기를
 『한편은 무의미하게 보지
 하는 사람의 등불을 불꽃
 가』 하였다.
 이 불꽃은 그 소경의
 『한편은 무의미하게 보지
 하는 사람의 등불을 불꽃
 가』 하였다.
 『한편은 무의미하게 보지
 하는 사람의 등불을 불꽃
 가』 하였다.
 『한편은 무의미하게 보지
 하는 사람의 등불을 불꽃
 가』 하였다.

李朝諸宮(一)

이로써(李朝時代)의 궁궐의
 형식이 가차 오렘은 창
 궁궐정전이고 그 정전(正殿)
 임정전은 전기하게도 동쪽
 앞에는 건축으로 여러 건물
 다는 이비(異稱)로만 규모가
 보인다. 시인에게 미발한 후는
 창궐전이라 부르고 동쪽전
 불전 박물과등도 공개되어있
 는데 박물관은 그 후 대수중에
 옮기고 동쪽전
 으로 서한 시인
 의 유원지(遊園
 地)로되어 있
 다.



昌慶宮

發展途上에苦悶하는 京都韓國中學校

六十餘年 동포가 살고 있는
 본에 소위우의 전역에서 경영
 하는 중학교로서는 오직하나
 없는 동교는 창립이후六年
 間 교명이 세번이나 변했고
 교장이 네번이나 갈리었다는
 은 그 얼마나 고민이었을까?
 하는 초대교장 모씨의 말에
 니와 이번동교는 겨우인단경도
 본부에서 인수하여 앞으로
 영하리라고 하는데 재단법인
 동교는 당당한 사람중학교
 중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재류동
 포들의 민족교육에 관한 인식
 부족과 본국정부 혹은주일
 대 표부 겨우인단중본부 관계
 당 국의 성의와 관심의하에 아무
 도움없이 홀로써 잘 되어갈
 동교는 해산의수고도 적거니
 와 양육에 고생은 말할수
 없었고고한다 그러나 앞으로
 도지방 유지여러분들의 원조를
 기다린다고한다 경영난 으로
 그동안 모씨에게 맡겼는데
 본 부단의 교육을 한다는 구실
 로 국기를 내리고 애국가를

하 하나님의 은총으로 되는 것
 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렇다고 여기까 한 의문이
 생겼으면 하나님이 사람의 하
 나님이라면 사람이 회개하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것인데
 어찌하여 어디까지나 죄를
 패삼아서 죄의 형벌이 필요하
 다든지 예수의 십자가의 희생
 이 필요한가 이렇게 도 열라
 하기 쉬울것이라
 그러나 그것은 큰 잘못이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요 곧 하나님의 정의의
 법을 거스르고 범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덮어놓고 "오나
 오나" 하고 뉘그러다 그 용서
 주신다면 그것은 사람의 하나
 님이 아니라 주재없는 어제의
 요파라서 하나님을 권위를
 잃어버릴것이다. 다시말하면 하
 나님께서 하나님다운 권위를
 가지신다면 그렇게는 할수없을
 것이다. 죄에 대하여는 도를
 말하고 범하지는것이 당연한
 일이다. 죄라는것은 용서할수
 없는것이 죄의 본색이다. 죄라
 는것은 쉽게 용서함을 받을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죄라
 는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
 나님의 사랑이 어떤것인지도
 모르는 자이다.
 그러면 예수를 믿어서 구원
 을 얻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누구나 기독교에 정하
 는 이에게 큰 문제요 사실
 기독교의 중요한 도리지만 그
 령하고 이러한 도리는 말로
 에서 구원을 얻는 것은 온전
 그들의 연구와 예배를 혼란하
 기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예
 배 시간이 되면 모든 사람의
 전력과 조심으로 행하여야 한
 다. 예배인 이상 철저한 의미
 로 예배가 되어야 한다. 동시
 에 될수 있는 한 아름다운
 모양으로 행하여야 한다.
 예배를 개회하는데 참외꽃
 은 첫째로 일정한 제복 혹은
 인상 줄 정복을 착용하여서 온
 클라쓰가 이것을 알게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가령 사
 당이나 믿음 같은 본상적 덕
 목(德目)이라야 한다는것이아
 니다. 특히 의면이들에게 이런
 것을 사후할것이나나나 의기서
 우리가 굉장한 죄보다 더 구
 죄적인 죄목이라야 할것이다.
 하 하나님의 은총으로 되는 것
 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렇다고 여기까 한 의문이
 생겼으면 하나님이 사람의 하
 나님이라면 사람이 회개하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것인데
 어찌하여 어디까지나 죄를
 패삼아서 죄의 형벌이 필요하
 다든지 예수의 십자가의 희생
 이 필요한가 이렇게 도 열라
 하기 쉬울것이라
 그러나 그것은 큰 잘못이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요 곧 하나님의 정의의
 법을 거스르고 범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덮어놓고 "오나
 오나" 하고 뉘그러다 그 용서
 주신다면 그것은 사람의 하나
 님이 아니라 주재없는 어제의
 요파라서 하나님을 권위를
 잃어버릴것이다. 다시말하면 하
 나님께서 하나님다운 권위를
 가지신다면 그렇게는 할수없을
 것이다. 죄에 대하여는 도를
 말하고 범하지는것이 당연한
 일이다. 죄라는것은 용서할수
 없는것이 죄의 본색이다. 죄라
 는것은 쉽게 용서함을 받을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죄라
 는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
 나님의 사랑이 어떤것인지도
 모르는 자이다.
 그러면 예수를 믿어서 구원
 을 얻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누구나 기독교에 정하
 는 이에게 큰 문제요 사실
 기독교의 중요한 도리지만 그
 령하고 이러한 도리는 말로
 에서 구원을 얻는 것은 온전
 그들의 연구와 예배를 혼란하
 기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예
 배 시간이 되면 모든 사람의
 전력과 조심으로 행하여야 한
 다. 예배인 이상 철저한 의미
 로 예배가 되어야 한다. 동시
 에 될수 있는 한 아름다운
 모양으로 행하여야 한다.
 예배를 개회하는데 참외꽃
 은 첫째로 일정한 제복 혹은
 인상 줄 정복을 착용하여서 온
 클라쓰가 이것을 알게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가령 사
 당이나 믿음 같은 본상적 덕
 목(德目)이라야 한다는것이아
 니다. 특히 의면이들에게 이런
 것을 사후할것이나나나 의기서
 우리가 굉장한 죄보다 더 구
 죄적인 죄목이라야 할것이다.

우리의覺醒

大韓長老敎總會를 앞두고

금일 韓國의 국제적인 입장
과 敎회의 세계적인 관심과
또는 국가민족적인 입장을
이 생각하여야 할 긴밀한 시기
임을 우리는 잘 이해하고 있다
동시 현재 敎회지도자들이 거
러가고 있는 방향이 어떠한가
해하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각성
하고 있는가? 예리하게 검토
할 필요가 있다.

先 趙 吉득교국가들은 數十
후은 數百의 敎徒를 가하여도
주안에서의 兄弟愛에 있어서는
何等の 손상이없이 나아가고 있
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와 정
반대로 부정까지 상하고 있는
상대는 크나큰 죄악이다 오늘
우리교회는 나누어져서는 않된
다 하나이되어야 한다. 이 국가
민족의 생사의 기로에서 생명의
의 파수군이 되어야겠다는 이
념에는 다같이 일치된 결심
결심이다. 지난때의 어수선한
육적인 대우와 피흘린 손 잔
을 다같이 밟고 뼈아프게 매
저진 한 형제로서 뜨거운 그
리스도의애정은 가슴에 뛰고 있
음을 다같이 느끼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일어나고 있
는 길은 어떠한가? 本意가
아닌 길을 부득기 걸어가는

어떤은 사정이 아니고 무엇인
가? 사회에 대한 미안·敎會
내의 불안 개인생활에 대한
고민 가운데서 헤매이는 형편이
다 이러한 상태는 길에 유지
될리가 만무하야 이제는 절정
에 도달된 감이 있다. 敎會
과 사단의 종로에서 검은로다
자기 수상에 남의 회색을 감
합과 敎회의 양면적인 면
이야 잘된면 못된면 자기교집
에 시종연관하야 敎회의 본질
의 원인이 되어있으면서 어떤
自若승리의 영웅처럼 위대한
先覺者처럼 가장 양심적인 선
지자처럼 최고법정의 심판관처
를 가장 거룩한 성도처럼 자
남은 이당에서 용서할수없는
죄인일것이다. 한편 이들 교회
라하야 어부의 이를 도모하면
서 자기의 만족을 구하려는
경향도 다같이 성실한 일이다
이제는 우리교회도 覺醒을
하여야 한다 우리의 공동된 고
인의원인을 제거하여야 한다. 그
리고 우리는 넓은 그리스도적
심장으로 이해와 동정 사람과
단결을 힘써야 할것이다.
본래 양보가없는 해결은 있
을수없는것이다. 권리를 위하여
는 적은것은 양보해야한다. 폭

군 제왕 전제는 왕을 위하하
는 인민의 많은 피를 갈아한
다 그러나 현대에 있어서 왕
없는 적은 일로 막대한 희생
의 감오는 할수없는 일일것이
다. 합창 장도 아니면서! 우
리는 우리교회의 장래에 대한
원대한 사고가 있어야할것이다
최근 절없는 사람들을가운데는
과거의 지도자들을 몹시도 무
시하는 언동을 경솔하고있다
그러나 우리민족중에서 지난
에 분사한 분들이 그 얼마나
위대하고도 위대한 이념의 지
도자들이었는을 알수가있다. 민족
적 운동에서三一운동후에도
은 山東宣敎를 생각할수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할수있는
코들은 절절한 현실은 어떻게
한가? 우리들은 이념이나 주의를
前從의 충성을 하지않아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
는 그 복음전리만으로 도
할것이며 현재의상대로는 그의
의 상대로는 그의 의의것은 유
의보다 副作用만이될것이다. 동
시에 우리는 현대적인 사정인
자신이 소위하고 순수히
할수있는 기능과 효과적으로
의이다. 韓國 敎회전체로서 이 敎회의
의 사회적 敎회의 敎회를 지고
一기一통을 하려야 할것이므로

詩 大 金 熹 星
갈대야
모진 바람에도 살았살았
거친 밀물에 휩쓸려도
유순한 씨렁스 갈대야
저기 잔악한 인간의 날이
시퍼렇게 번뜩이누나
갈대야
갈대야
모여서 사는
속이고
이 오 가 소 시 비
가 마 시 비
바람

한글 표 실 (3)

담 당 張 曉

(물음)“읍니다”와 “습니다”는
어느 것이 바른지요? 일본에
있는 동포 중 한글에 관심을
두는 이 사이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논쟁이 심한데, 자세한
설명을 바랍니다.(東京 학생)

(대답) 둘 다 바릅니다. 먼저
“읍니다”를 가지고 말하면, “습
니다”는 지금의 말을 표준하
여 처리하면, 받침 없는 어간
에 붙는 “읍니다”에 조음소
“으”가 붙은 것으로 볼 수
있으니, “자바니다, 잡 (으)바니다”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것이며; “습니
다”로 말하면, “억습니다, 겁습
니다, 그렇습니다, 무겁습니다”
와 같이 실제의 언어 사실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억읍니다, 겁읍니다, 그렇니다,
무거읍니다”보다도 오히려 위
의 “습니다”가 붙은 말들이
더 많이 쓰이는 현상입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습니다”
가 바릅니다. 여기서 자세히
설명할 수는 못하겠지만
옛날에는 여러 가지의 높임과
낮춤의 조동사가 있었는데, 그
것들이 옛날의 어법에 의한
파생적 본화로 말미암아, 또는
옛 글자가 없어짐에 따른 변
천을 겪어 “습” 계통의 말과
“니” 계통의 말이 합쳐 “습니

있습니다.
(받침 없음) (받침 있음)
가오 겹으오 겹소
보오니 먹으오니 먹소오니
자음- 많으음- 많사음-
이와 같이 두 계통의 말이
있는데, 이것들파도 깊은 관련
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습니다”가 두루 쓰이지
못하므로, “읍니다” 하나로만 응
일하자는 생각은 좋으며, 또
정차 우리말이 그렇게 변하여
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습
니다”를 쓰지 않는다면, “고맙
습니다”로는 절대로 할 수
없고 “고맙읍니다”로만 말해야
할 것입니다. 말로는 “짓습니다,
물습니다, 곱습니다”로 하고
글로는 “지읍니다, 물읍니다, 곱
읍니다”로 적어서는 우리말 표
표기의 모순입니다. 그러나, 둘
다 쓴다면, “한 개념을 가진
말은 한 가지로”의 표준말의
정신에 저촉이 되지 않을까
하는 문제가 남았습니다. 본디
우리말은 어감(語感)을 예민
하게 표현하는 것이 그 특색
의 하나일 것입니다. “읍니다”
는 그 어감이 보편적임에 대
하여 “습니다”는 더 친근함과
특히 옛스러운 존칭의 어감이
있으므로 표준말로 쓰일 수
있다고 보아 온 것입니다. 마
만 “습니다”로 하다가 끝방
“읍니다”로 하는 것은 어감을

田葉澤作

神學生七十二名卒業

나긋한 자태
것인 줄 우노라

고온은 나를 약한 인간에
 저온은 나를 여자라 하였나니
 숨이어서 온설혼의

모라
스. 모친 사내에게 쫓겨
가까지 이르러 갈대로
(처녀)

그리고, “있슴 (음) 니다, 없슴 (음) 니다, (먹) 었슴 (음) 니다, (보) 았슴 (음) 니다, (가) 겠슴 (음) 니다” 에 있어서는 그 위의 △이 이어나므로 말소리가 같아 집니다. (참고 문헌: 김 형규 경양사의 연구의 몇 가지)

“습니다”는 그 근거를 찾을 수
없고 “니”를 알아서 된 말
이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으”를 따로 처리하여 “습니다”
가 발정 없는 어간에다 있는
어간에나 두루 쓰임에 대하여,
“습니다”는 발정이 있는 어간
아래에만 쓰인다는 약정이 있
습니다. 이런 것은 이 밖에도

목사님이 빛이라고

하시는 건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
다. 마는 제 이런한 생각에는
는 사회에는 민중의 경제적
평등과 생활의 보장이 있어야
빛이 있고 평화가 있지요. 그
렇지 못하고 착취가 있고 생
활의 불안이 있는 동안에는
언제나 불평이 있고 암흑이
있을 것입니다.』

태호는 눈물감고 앉아서
목사의 말을 듣다가 이런
말을 던졌다.

적으로	에	하는	나는	『글세
경계적인	빛이	게요	그보다	그도
조건이	없으면	사람의	마음의	그렇듯
원만	아무리	마음	빛을	하지 않는
	사회	마음	암	

하더라도 참 자유와 행복이 있을 수 없는 법이오 마치 태양의 빛이 없으면 우주의 빛의 근원인 햇빛을 받지 아니하면 단골의 병명사씨의 존재가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세상에 하나님의 빛이 없고 그 빛을

받지 못하면 세계와 인간의
생명은 있을수 없는게요 그
빛은 사람의 빛이오 공의(公
義)의 빛이라고 할수 있지요
오늘 우리사회에는 빛이 없어
요 사람의 빛이없고 공의 빛
이없는걸 이 두가지 빛이없어

지는 날에 세상은 결단이야』
한목사의 권위있는 설명의
태호는 고개를 끄덕여리고 있다
『목사님 잘 알겠습니다』
태호는 비로소 공순한 태도
를 가진다.

『알겠는가 이제 윤관은 이 사회에서 경제적인 빛도 되려
니와 공의의 빛이 되시오 명
에는 사랑의 빛이 되어 어두운
우리 사회의 광명의 주인공이
되어야 공의와 사랑 두가지
가 합하면 큰 일을 하는 것이
불론 남자에게 두 사람도 있
어야지 윤관은 부디 명해도
사랑하고 나라와 사회를 사랑
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여주게 그러면서도
이년까지나 정의가 따르는 사
람이라야 해.....』
『물입니다 사랑에는 정의감이
따라야지요』

한복사의 말에 정장로도 이
렇게 찬동을 하였다。

그런데도 시간이 지나서 한
 국사 내의와 교회 손님들이
 근처 돌아가고 그날오후에 몇
 명은 매초를 따라서 백천온천
 으로 간다고 가고 정정로의 집
 은 무척 요요해졌다 정경로와
 오복부인은 공책 기르던 날
 온기가 늦어서 유전정
 다가가 돌아와 애속교도 손

3. 3월 25일 1945년 3월 25일
 4. 3월 26일 1945년 3월 26일
 5. 3월 27일 1945년 3월 27일
 6. 3월 28일 1945년 3월 28일
 7. 3월 29일 1945년 3월 29일
 8. 3월 30일 1945년 3월 30일
 9. 3월 31일 1945년 3월 31일
 10. 4월 1일 1945년 4월 1일
 11. 4월 2일 1945년 4월 2일
 12. 4월 3일 1945년 4월 3일
 13. 4월 4일 1945년 4월 4일
 14. 4월 5일 1945년 4월 5일
 15. 4월 6일 1945년 4월 6일
 16. 4월 7일 1945년 4월 7일
 17. 4월 8일 1945년 4월 8일
 18. 4월 9일 1945년 4월 9일
 19. 4월 10일 1945년 4월 10일
 20. 4월 11일 1945년 4월 11일
 21. 4월 12일 1945년 4월 12일
 22. 4월 13일 1945년 4월 13일
 23. 4월 14일 1945년 4월 14일
 24. 4월 15일 1945년 4월 15일
 25. 4월 16일 1945년 4월 16일
 26. 4월 17일 1945년 4월 17일
 27. 4월 18일 1945년 4월 18일
 28. 4월 19일 1945년 4월 19일
 29. 4월 20일 1945년 4월 20일
 30. 4월 21일 1945년 4월 21일
 31. 4월 22일 1945년 4월 22일
 32. 4월 23일 1945년 4월 23일
 33. 4월 24일 1945년 4월 24일
 34. 4월 25일 1945년 4월 25일
 35. 4월 26일 1945년 4월 26일
 36. 4월 27일 1945년 4월 27일
 37. 4월 28일 1945년 4월 28일
 38. 4월 29일 1945년 4월 29일
 39. 4월 30일 1945년 4월 30일
 40. 5월 1일 1945년 5월 1일
 41. 5월 2일 1945년 5월 2일
 42. 5월 3일 1945년 5월 3일
 43. 5월 4일 1945년 5월 4일
 44. 5월 5일 1945년 5월 5일
 45. 5월 6일 1945년 5월 6일
 46. 5월 7일 1945년 5월 7일
 47. 5월 8일 1945년 5월 8일
 48. 5월 9일 1945년 5월 9일
 49. 5월 10일 1945년 5월 10일
 50. 5월 11일 1945년 5월 11일
 51. 5월 12일 1945년 5월 12일
 52. 5월 13일 1945년 5월 13일
 53. 5월 14일 1945년 5월 14일
 54. 5월 15일 1945년 5월 15일
 55. 5월 16일 1945년 5월 16일
 56. 5월 17일 1945년 5월 17일
 57. 5월 18일 1945년 5월 18일
 58. 5월 19일 1945년 5월 19일
 59. 5월 20일 1945년 5월 20일
 60. 5월 21일 1945년 5월 21일
 61. 5월 22일 1945년 5월 22일
 62. 5월 23일 1945년 5월 23일
 63. 5월 24일 1945년 5월 24일
 64. 5월 25일 1945년 5월 25일
 65. 5월 26일 1945년 5월 26일
 66. 5월 27일 1945년 5월 27일
 67. 5월 28일 1945년 5월 28일
 68. 5월 29일 1945년 5월 29일
 69. 5월 30일 1945년 5월 30일
 70. 5월 31일 1945년 5월 31일
 71. 6월 1일 1945년 6월 1일
 72. 6월 2일 1945년 6월 2일
 73. 6월 3일 1945년 6월 3일
 74. 6월 4일 1945년 6월 4일
 75. 6월 5일 1945년 6월 5일
 76. 6월 6일 1945년 6월 6일
 77. 6월 7일 1945년 6월 7일
 78. 6월 8일 1945년 6월 8일
 79. 6월 9일 1945년 6월 9일
 80. 6월 10일 1945년 6월 10일
 81. 6월 11일 1945년 6월 11일
 82. 6월 12일 1945년 6월 12일
 83. 6월 13일 1945년 6월 13일
 84. 6월 14일 1945년 6월 14일
 85. 6월 15일 1945년 6월 15일
 86. 6월 16일 1945년 6월 16일
 87. 6월 17일 1945년 6월 17일
 88. 6월 18일 1945년 6월 18일
 89. 6월 19일 1945년 6월 19일
 90. 6월 20일 1945년 6월 20일
 91. 6월 21일 1945년 6월 21일
 92. 6월 22일 1945년 6월 22일
 93. 6월 23일 1945년 6월 23일
 94. 6월 24일 1945년 6월 24일
 95. 6월 25일 1945년 6월 25일
 96. 6월 26일 1945년 6월 26일
 97. 6월 27일 1945년 6월 27일
 98. 6월 28일 1945년 6월 28일
 99. 6월 29일 1945년 6월 29일
 100. 6월 30일 1945년 6월 30일
 101. 7월 1일 1945년 7월 1일
 102. 7월 2일 1945년 7월 2일
 103. 7월 3일 1945년 7월 3일
 104. 7월 4일 1945년 7월 4일
 105. 7월 5일 1945년 7월 5일
 106. 7월 6일 1945년 7월 6일
 107. 7월 7일 1945년 7월 7일
 108. 7월 8일 1945년 7월 8일
 109. 7월 9일 1945년 7월 9일
 110. 7월 10일 1945년 7월 10일
 111. 7월 11일 1945년 7월 11일
 112. 7월 12일 1945년 7월 12일
 113. 7월 13일 1945년 7월 13일
 114. 7월 14일 1945년 7월 14일
 115. 7월 15일 1945년 7월 15일
 116. 7월 16일 1945년 7월 16일
 117. 7월 17일 1945년 7월 17일
 118. 7월 18일 1945년 7월 18일
 119. 7월 19일 1945년 7월 19일
 120. 7월 20일 1945년 7월 20일
 121. 7월 21일 1945년 7월 21일
 122. 7월 22일 1945년 7월 22일
 123. 7월 23일 1945년 7월 23일
 124. 7월 24일 1945년 7월 24일
 125. 7월 25일 1945년 7월 25일
 126. 7월 26일 1945년 7월 26일
 127. 7월 27일 1945년 7월 27일
 128. 7월 28일 1945년 7월 28일
 129. 7월 29일 1945년 7월 29일
 130. 7월 30일 1945년 7월 30일
 131. 7월 31일 1945년 7월 31일
 132. 8월 1일 1945년 8월 1일
 133. 8월 2일 1945년 8월 2일
 134. 8월 3일 1945년 8월 3일
 135. 8월 4일 1945년 8월 4일
 136. 8월 5일 1945년 8월 5일
 137. 8월 6일 1945년 8월 6일
 138. 8월 7일 1945년 8월 7일
 139. 8월 8일 1945년 8월 8일
 140. 8월 9일 1945년 8월 9일
 141. 8월 10일 1945년 8월 10일
 142. 8월 11일 1945년 8월 11일
 143. 8월 12일 1945년 8월 12일
 144. 8월 13일 1945년 8월 13일
 145. 8월 14일 1945년 8월 14일
 146. 8월 15일 1945년 8월 15일
 147. 8월 16일 1945년 8월 16일
 148. 8월 17일 1945년 8월 17일
 149. 8월 18일 1945년 8월 18일
 150. 8월 19일 1945년 8월 1

큰 실수를 저지른 것 같아서
이 좋은 사제 맞아서 기쁘겠
다고 인사하는 말이 도무지
인용치 않게 들리고 도리어 무
슨 까닭이 있는 말 같아서
기분하였다.

『당신 구시지』	『관찬아 당신 서움 쉬우』	『두 사람은 오래간만에 이별 의 종용한 시간을 가지게 되 었다』
편하실 렌메 일족 주	참 편하겠소	

『작을 들것 잡지도 앉소 나
는 골이 땀해서 웬 센을 모
르겠소』
『모르긴 무얼 몰라 오』
정정로 내외는 이렇게 이야
기가 시작되었다.

당신은 사뭇 전설 아이가
 다는 줄을 처음부터 아셨소
 이긴 이제 와서 무슨 새삼스
 운 소리가 기적에 하나 있다
 아아 왜 그때 두 해버리자
 그랬지 저도 알지 안아 왜
 당신 돌아오구만』
 『글세 돌아오는지 몰이 때해서
 오르겠구만 그리구 세레반구
 자라나니 어디 아까 그런
 이 어디 신의 말씀습디까.
 회주의나 뺨뺨이 수작이지
 아님 앞에서……』
 『아나 아나 그럴리가 있나
 쥔은이가 다 그런거야
 연이 열려 말아요』

祝 福 音 新 聞 (舊基督新報) 發 展

독자여분에게
삼가드립니다

주심을 감사드리나이다. 금번
본지는 제호를 『북음신문』으로
고치는 동시에 장차 부수와 지면을
확장하여 독자 여러분의 기대에
응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독자의
여분의 애호와 협력 없이는 도
저히 할 수 없는 일이므로 특히
여러분께 요청하는 바는 구독료
를 다만 얼마씩이라도 자조자
조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신
문값과 돈보내는 것은 다음과 같
습니다.

一九五三年四月八日

『舊』基督新報社

신문(譯讀料)

一 個月 四〇圓

半年分 二四〇圓

一年分 四八〇圓

但一年分을 先拂하여 주시
는 본에 게 四五〇圓으로
해드립니다.

一 現金 爲 爲 爲 모내심 때는
東京都千代田區神田區藥町

二 一四 福音新聞社로

一 振替口座로 모내심 때는
東京一八二五三八基督新聞社

綿 雜
布 貨
— —
卸

三和産業株式會社

金聖浩

大阪市北區梅田町二番地
電話 福島(45)四七二〇番

和盛實業株式會社

東京支店

東京都澁谷區代々木初台町六二八
電話 (37) 一三〇九番